

군산대 공과대·해양대 교수진, 고군산군도 해상풍력터빈 실증 연구사업 추진

전북-군산경제에 새바람 부나

연구단지로 지정되면
사업 추진중인 업체들이
시험운전기록 등 확보 이점
대학 "고용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가능"

지난해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신재생 정책의 기조 아래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일명 '초록바람' 남북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명신 군산대학교 총장을 중심으로 공과대학과 해양과학대 교수진이 고군산군도 일원에 대규

모 해상풍력터빈 실증 연구사업에 뛰어 들었다. 군산대가 추진하는 이번 실증연구사업은 미래형 전라산업으로 취약한 국내 해상풍력 사업을 진일보 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산업은 조선, 해운, 해양플랜트, 중공업, 전기, 전자, 건설, 토목, IT, 철강, 화공, 운송 등을 포함하는 융·복합 산업으로 최근 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공장 폐쇄 결정에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에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고군산군도 일원에 실증사업 연구단지가 지정되면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업체들이 시험운전기록, 풍력단지설계 기술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해상풍력 실증단지 기본설계 및 인허가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인프라(계통, 물류) 및 제약요건(군사보호지역, 어업권, 해로 등) 실증단지 최적배치

방안 조사 및 평가가 진행된다. 다음으로 계통연계(해저케이블 포함), 통합모니터시스템과 변전설비 등을 구축하고 지자체 등 민간자체자금으로 해상풍력터빈 공급 및 기초구조물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군산대는 정부의 신규에너지 개발사업에 뛰어난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 중 47%가 실직물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군산대는 정부의 신규에너지 개발사업에 뛰어난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 중 47%가 실직물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군산대는 정부의 신규에너지 개발사업에 뛰어난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 중 47%가 실직물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군산대는 정부의 신규에너지 개발사업에 뛰어난 배경에 대해 현재 지역 내 제조업 근로자 중 47%가 실직물을 설치 운영하게 된다.

너지박물관, 특산물매장과 함께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내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신 총장은 "고군산군도는 해상풍력터빈 실증 연구단지로서의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으로 희망을 놓고 있는 군산시민들과 도민들에게 한줄기 빛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선정위원회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올해 2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정부는 4월 5일 군산시를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에 다양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현재 국회의 추가경정예산 지연으로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해상풍력터빈 실증 연구단지 시범사업에 지역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홍남동 홍봉이봉사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9일 관내 이웃 25세대에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군산 홍남동 홍봉이봉사대, 밀반찬 나눔 봉사

군산시 홍남동 홍봉이봉사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9일 관내 이웃 25세대에 밀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반찬 나눔에는 통장과 부녀회원 등 1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거동이 불편해 직접 식사를 차리기 어려운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들이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밀반찬을 만들어 집집마다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지역 내 한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 쓸쓸했는데 맛있는 반찬을 전달해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 고맙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영섭 동장은 "나눔을 실천하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 이웃사랑을 실천해주시는 봉사대원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지원 발굴 및 복지서비스 향상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당-청-시 3각공조체제 구축"

민주당 김영배 익산시장 예비후보 지선 출정
참여자치·자립경제 등 6대 발전 비전 제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익산시장 예비후보(사진)가 9일 익산 시청 브리핑룸에서 6.13 지방선거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문재인과 함께, 집권여당과 함께, 김영배와 함께 익산의 위기를 기회로! 우리 한 번 해봅시다"라는 회견문 발표를 통해, 6.13 지방선거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집권여당-청와대-익산시의 3각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으로 규정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김 예비후보는 "6.13 지방선거는 남북 평화 정착과 국가 혁신에 정권의 명운을 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 민주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말하며 "힐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등으로 과거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농정비전과 실천계획 제시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즐거운 학교생활... 오늘도 화이팅!"

군산미장초 허그데이 행사

군산미장초등학교(교장 이재목)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하고 격려하기 위해 허그데이 행사를 진행했다. 미장초 허그데이 행사는 이재목 교장을 비롯한 학교 교직원들과 아버지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1300여 명의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안아주고 힘찬 응원의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한 학생은 "프러너그데이를 통해 멀게만 느껴졌던 부

모님, 선생님과 가까워진 것 같고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환경인 미장초 학부모회장은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인해 뜻깊고 즐거운 행사로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이재목 미장초 교장은 "교정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웃음이 묻어나는 웃음바이러스에 감염된 느낌이었다"며 "건강한 웃음바이러스를 선물해 주신 미장초등학교 학부모회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성료

익산시는 지속가능한 익산농업의 발전을 위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수립 착수보고회(이하 보고회)가 9일 익산시 농업인교육관에서 농민단체 임원, 희망농정위원회 등 80여 명의 농업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법정 계

획 수립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익산시농업의 중장기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의 개요 및 과업수행 방향에 대한 착수 보고회로 최종설계 미래농업과장의 경과보고와 (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황의식 박사의 연구 방향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배경은 저성장장과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의 도래, 농가 고령화와 과소화 마을 증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농정체제 구축이다. 또한 ▲성장 위주 농정 패러다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미래 농정 발전전략 수립 ▲농산물 수급 안정, 먹

거리 안전과 농촌다움 보전 등 소비자의 수요와 관점을 반영 ▲농산물 가격 불안과 소득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청년이 찾는 스마트농업 등 일자리 창출형 농식품 산업으로 도약 ▲소비자들이 건강한 먹거리를 안심하고 소비하고, 전 국민의 삶터·일터·힐터로서 사람이 돌아오는 농촌 등으로 과거 농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요구를 충실히 담은 농정비전과 실천계획 제시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꿈향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수심 명품도시 군산

Dream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